

# ‘韓 유일 액화수소 생산·운송 기술’ 하이리움산업, 상장 통해 제2 도약

이달 기술특례상장 평가 본격 진행  
상반기 결산 후 9월 상장 신청 계획  
김 대표 “빠르면 11월께 일반 공모”  
독일·인도 법인 추진, 美·中엔 설립

액화수소분야 강소기업인 하이리움 산업이 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시도한다. 하이리움산업은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 생산·저장·이송·안전 기술을 독자 개발한 회사로 액화수소와 관련해 국내엔 경쟁자가 없다.

8일 하이리움산업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부터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평가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김서영 하이리움산업 대표는 “상반기 사업결산을 거쳐 9월에는 주권상장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11월쯤에는 일반 공모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이스트(KAIST) 기계공학 박사 출신인 김 대표는 20년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액화수소를 연구하다 2014년에 하이리움을 창업했다.

하이리움은 기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화투자증권 등이 재무적투자자(FI)로, 현대차, 포스코, SK가스 등은 전략적투자자(SI)로 각각 참여하며 지금까지 누적 402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기업가치는 1247억원에 달한다. 작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예비유니콘 15개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수소 액화, 액화충전소, 운송트레일러, 저장탱크, 수



김서영 하이리움산업 대표. /김승호 기자

소드론 등 생산부터 활용까지 수소산업 전 주기를 다 커버하며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연구개발(R&D)에 적지 않은 투자비용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액화수소는 기체 상태인 수소를 영하 253℃의 극저온으로 액화한 것이다. 이렇게하면 부피는 800분의 1로 줄어들어 저장효율을 높일 수 있고 액화상태이기 때문에 운반하는데도 매우 안전하다.

김 대표가 하이리움을 창업한 이후 현재까지 액화수소탱크, 액화기, 수소드론 및 수소충전소와 관련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에서 취득한 등록특허만 52건, 특허출원은 58건에 달한다.

하이리움이 초저온 탱크 제조 글로벌 1위 기업인 미국 차트인더스트리와 함께 만든 액화수소 운송트레일러는 SK, 효성에 납품했다. 제안은 차트가 먼

저했다.

하이리움이 설계해 직접 제조하고 있는 이중으로 된 액화수소 저장탱크는 경쟁사 제품보다 오히려 가볍고 저장용량은 2~4배 더 많다. 이 저장탱크는 수소차,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수소선박 등 활용도가 매우 넓다. 저장탱크는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영국 등에도 납품했다.

미국의 수소기업 엘리먼트1도 하이리움이 개발한 수소액화기 때문에 ‘러브콜’을 보냈다. 하이리움의 100kg/day급 수소액화기는 ‘수소 도시’를 지향하는 강원도 삼척시에 지난해 설치한 바 있다.

또 하이리움이 개발한 액화수소 드론은 6시간44분간 체공했다는 공식인증(2024년 4월5일)을 국내에서 받았다. 국내 최초의 액화수소 드론 1호기는 육군 아미타이거에 공급했다.

“한국에는 드론에 액화수소 탱크를 올리는 법규가 없다. 차량도 마찬가지다. 법규가 없어 액화수소탱크를 장착한 배를 바다에 띄우질 못하고 있다. 모든 부품을 국산화했는데도 제도가 받춰주질 않는게 현실이다. 유럽, 미국, 중동 등은 그렇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알만한 슈퍼카 브랜드들도 액화수소 연료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멀었다.”

김 대표는 조만간 독일(에센)에 유럽법인을 세울 계획이다. 인도(뉴델리)에도 마찬가지다. 미국(LA), 중국(상하이)에는 이미 법인이 있다. 세계시장이 김 대표와 하이리움의 타깃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BYD, ‘아토3’ 앞세워 한국 공략 스타트

국고보조금 145만원으로 확정  
“한국 판매처 아닌 전략 거점”



을 내세우며 이른바 ‘가성비’ 전기차로 관심을 집중시켰다. BYD는 아토3의 본격적인 고객 인도로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 하지만 BYD는 한국 전기차 시장을 단순 판매처가 아닌 전략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류세량 BYD 아시아태평양 자동차 영업사업부 총경리(사진)는 지난 3일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한국자동차기자협회 기자단을 만나 “10년 전부터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BYD는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기 전부터 삼성, LG 등 한국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 왔다”며 “한국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BYD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핵심 축이다. 기술적으로도 배터리, 반도체 등 모든 가치사슬이 연결되어 있고 자동차 시장에서도 한국은 단지 ‘판매처’가 아닌 ‘전략 거점’이다”고 강조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BYD 아토3의 국고보조금을 145만원으로 확정했다고 게시했다. 단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평가절차가 남아 있어 실질적인 고객 인도는 다음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형 SUV 아토3의 판매가는 3000만원대 초중반대로 형성돼 있는데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경우 실구매가는 2000만원대 후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 BYD는 지난 1월 아토3의 사전 계약을 시작하면서 저렴한 가격

전기자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

“BYD는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기 전부터 삼성, LG 등 한국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 왔다”며 “한국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BYD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핵심 축이다. 기술적으로도 배터리, 반도체 등 모든 가치사슬이 연결되어 있고 자동차 시장에서도 한국은 단지 ‘판매처’가 아닌 ‘전략 거점’이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 빛속 타설 가능한 ‘우중 콘크리트’ 개발

유진기업·동양

시간당 강우량 최대 6mm까지 가능

유진그룹 계열인 유진기업과 동양이 비가 오는 날씨에도 안정적으로 타설이 가능한 ‘우중 콘크리트’를 공동 개발해 출시했다. 8일 유진기업에 따르면 새로 선보인 우중 콘크리트는 제조 과정에서 특수한 화학 혼화제를 활용해 타설 시 시멘트의 재료분리 저항성을 크게 향상한 게 특징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시간당 강우량이 3mm이하

일 경우에만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하다. 이 때도 빗물 유입 방지를 위한 천막 설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우중 콘크리트는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으로, 빗물이 콘크리트에 유입되더라도 시간당 강우량이 최대 6mm까지는 레미콘 품질 확보가 가능하다. 또 기존 배합과 유사한 압축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우천 시 거푸집 내부에 빗물이 고여 있더라도 우중 콘크리트가 이를 밖으로 밀어내면서 거푸집을 채워 재료분리 현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LS, 우크라이나 전력·에너지 등 협력 강화

명노현 부회장, 현지서 관계부처 회동  
지난해 트랙터 5대-ESS 1대 등 지원  
전력 생태계 구축·복구 방안 논의

LS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및 복구가 시급한 전력·에너지·농업 분야에 대한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

8일 LS에 따르면 명노현 LS 부회장은 4월 초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머물며 현지 에너지부, 경제부, 농림부 등 관계 부처 장관 및 CEO를 만나 ESS(에너지저장장치)를 비롯한 에너지 송배전망 복구와 농업 인프라 지원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LS는 지난 2023년 우크라이나에 트랙터와 로더 등의 농기계를 5대씩 지원했다. 올해는 임시 전원 공급이 필요한 곳에 쓰일 ESS 1대를 지원하며 우크라이나 정부와 인연을 맺어왔고 이는 이번 회담 성사의 계기가 됐다.

우선 로만 안다락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차관과 주요 기업 CEO 등을 만난 명 부회장은 LS그룹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발전, 송전, 배전 등 전력 인프라 및 ESS, 에너지 분야의 기술



(왼쪽 다섯번째) 명노현 LS 부회장이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에너지부, 농림정책·식품부, 경제부 인사들과 만나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LS

력에 대해 소개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전력 생태계 구축 및 복구 방안에 대해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비탈리 코발 우크라이나 농업 정책 및 식품부 장관을 만난 그는 전쟁으로 인한 농업 산업 피해 복구와 관련해 트랙터 분야에서의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해 현지 트랙터의 약 75%가 손실된 상황에서 이를 복구하기 위한 LS와의 협력안에 대해 적극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안드리 텔리우파 우크라이나 경제부 차관 등과의 회의에서는 재건 사업 전반에 걸친 참여 방안과 LS그룹의 투자 및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명 부회장은 “이번 출장을 통해 LS그룹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우크라이나와의 강력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 ‘윈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락앤락, ‘생활용품’ 동남아 판로 넓힌다

태국 씨피 엑스트라와 업무협약

락앤락이 태국 최대 유통그룹과 손잡고 동남아시아 시장 추가 공략에 나선다. 락앤락은 태국 씨피 엑스트라(CP Aextra)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CP Aextra는 태국을 대표하는 CP 그룹의 주요 유통 계열사로 대형 창고형 할인점 ‘마크로(Makro)’와 슈퍼마

켓 체인 ‘로투스(Lotus’s)’를 운영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각지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락앤락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CP Aextra 전용 제품 및 신규 상품 입점, 오프라인 판매 채널 확대 등을 통해 태국 현지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CP 그룹이 진출한 아시아 시장으로도 판로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 LX하우시스, 바닥재 등 인테리어 쇼룸 선보

무브먼트랩서 인기제품 13종 적용

LX하우시스가 국내 리빙·가구 편집샵 ‘무브먼트랩(Movement Lab)’과 협업해 최신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를 반영한 쇼룸을 선보인다. LX하우시스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한 ‘무브먼트랩 세컨드마켓’에 ‘에디톤 마루’ 바닥재, ‘디아팡’ 벽지, 인테리어필름 등 인

기제품 13종을 적용한 쇼룸 공간 ‘페르소나의 집’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최신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쇼룸 공간은 ▲30대 식집사(식물+집사)의 내추럴 룸 ▲반려묘와 사는 30대 신혼부부의 거실 ▲취미 많은 20대 남자의 방 ▲요리 유튜버가 꿈인 40대 주부의 다이닝 공간 등으로 총 4가지로 구성했다. /김승호 기자